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 런던·싱가포르에서 한국경제 성장전략과 원화국제화 계획 홍보

-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한국경제의 강한 성장흐름을 투자자들에게 적극 설명
-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등 원화국제화 로드맵을 공유하고 시장 의견 청취
-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 가동을 통한 투자자와 정기 소통체계 구축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7.20(월) 영국 런던과 7.22(수) 싱가포르에서 한국경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글로벌 금융기관들에게 한국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를 당부하였다.

【 ① 한국경제 투자 설명회: 한국경제 성장전략과 투자 매력도 적극 홍보 】

	한국경제 투자 설명회 참석 기관
런던 (7.20.월)	Amundi, BlackRock, Fidelity, HSBC, J.P.Morgan, LGIM, PIMCO, Standard Chartered, Wellington Management 등 14개 기관
싱가포르 (7.22.수)	BlackRock, GIC, Goldman Sachs, PIMCO, Schroders, Temasek, Western Asset Management 등 12개 기관

핵심 투자자 중심의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된 설명회에는 세계 최대 규모 자산운용사인 블랙락을 비롯하여 아문디·슈로더 등 주요 자산운용사, 주요 국부펀드, 골드만삭스·HSBC·JP모건 등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이 참석하였다.

동 행사에서 문 관리관은 한국경제의 견조한 성장 흐름과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중점 설명하였다. 특히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5년 만에 가장 높은 3% 성장률을 기록하고 명목 GDP도 약 30년 만에 가장 높은 1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계 5위 수출국 도약과 역대 최고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 반도체 중심 설비투자 확대가 한국경제 성장세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밝힌 ‘3·4·5 목표’인 잠재성장률 3% 회복, 세계 4대 수출국 도약, 1인당 국민총소득 5만 달러를 소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거시경제 안정, 공급망·에너지안보 강화, 성장동력 확충, 지역균형성장 및 구조개혁 등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였다.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의 높은 성장 전망,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라 늘어난 세수 활용 방안과 반도체 호황의 지속 가능성, 주식시장 변동성 완화 계획, 원화 국제화 계획 등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문 관리관은 최근 원화 환율 흐름에 대한 질문에 조선·반도체 등 수출기업의 현·선물환 매도 확대 등 외환수급 변화가 일시적 이벤트를 넘어 향후 지속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현재 원화 환율이 여전히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과 괴리되는 만큼 추가 절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을 감안해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과 전략 비축을 확대하고, 해외 생산시설 투자와 장기 구매계약 등을 통해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② 외환분야 설명회: 원화국제화 로드맵 소개 및 시장 의견 청취 】

한편, 문 관리관은 런던 소재 RFI* 및 싱가포르 글로벌금융시장협회 외환부문(GFXD)**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외환분야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도록 등록된 외국 금융기관

** Global Foreign Exchange Division: 주요 글로벌 은행들이 참여하는 글로벌금융시장 협회(GFMA) 산하 외환시장 업계 협의체

	외환분야 설명회 참석 기관
런던 (7.20.월)	Bank of America, BNP Paribas, HSBC, Northern Trust, State Street, Wells Fargo 등 14개 기관
싱가포르 (7.22.수)	Barclays, BNY, Citi, Deutsche Bank, ING, MUFG, RBC 등 12개 기관

설명회에서 문 관리관은 RFI 제도개선 등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혁 추진 현황과 함께, 원화를 해외에서도 보다 자유롭게 보유·거래·조달할 수 있는 통화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근 발표한 원화국제화 로드맵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참석자들은 원화 국제화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계획에 대해 지지를 나타내면서,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야간 원화 유동성 공급 방안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문 관리관은 외국인 투자자가 해외에 소재한 기존 거래은행을 통해 원화를 편리하게 거래·보유·결제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민간 금융기관 중심의 유동성 공급과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③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 투자자와 상시 소통·환류채널 마련 】

마지막으로 문 관리관은 이번 한국경제 투자설명회 등을 계기로 글로벌 투자자와 국내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를 공식 가동할 계획을 밝혔다. 협의체는 정부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 사항을 직접 설명하고, 투자 과정에서 제기된 애로 사항을 검토·해소하는 상시 소통·환류채널로 운영할 예정이다.

*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 주재, 금융위·한은·금감원·거래소·예탁원 등 관계기관과 글로벌 주요 자산운용사, 투자은행 등 글로벌 투자자 참여

문 관리관은 앞으로 해외 투자자들이 거래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경청하고 소통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출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투자자와의 양방향 소통 체계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책임자	과 장 김희재 (044-215-4710)
		담당자	사무관 홍석찬 (hsc1006@korea.kr)
			사무관 이창선 (dje9350@korea.kr)